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치졸한 국민의당 작태 스트레스다

무서운 집단이다. 일부 구성원들 또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대신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무서운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이 대하는 그를 영웅으로 모셨을까. 아니다. 지금의 작태를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때는 그 비밀이 탄로날까봐 또한 흥악한 환자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국무부도 한 짓을 저지른 그도, 그가 속한 집단도 모두 이 시대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국민의당과 일부 관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모두 이유미 씨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 대표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민도, 국민의당도, 자신도 천인공노할 조작국에 모두 속았다고 하는 말이 그렇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죽여려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누가 그렇다는 말인가. 최조로 좌를 고백한 것도, 저지를 것도 그들이다. 설령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오로지 이유미 한 사람에 그쳤다고 지자. 그렇다고 국민의당에, 특히 그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대선 시, 물고기 물 만난 듯 조작된 정보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송두리 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쪽은 그들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만 궤변중이다. 참으로 웃기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집권당의 실망은 국에 달하고 있다.

핵심이 되었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지 않은가.

그것도 투표일 3일 앞두고 저지를 만행. 반격 자체도 하지 못할 시간이었다. 악행의 극지가 아닌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집권당에 되지도 않을 역공까지 펴면서,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며. 참으로 기관이다. 얼마나 육심이 많았으면 그렇게도 부실한 검증을 했을까.

그들 말대로 당원 혼자만의 원맨쇼라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현재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게도 뒤지고 있다는 것이 뭔가 뜻하는지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지역민들의 실망은 국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견진한 다당제를 원했다. 서로 경쟁을 해야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지역민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출마자 모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그 나들에 그 밖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는 것을 지역민들은 알아차려야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파격적인 행보는 물론 지역인재들을 등용해주는 것부터 말이다. 이러니 지지하지 않겠는가. 제발 각성해라. 넓은 도량을 가져라. 좁쌀행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 지역민들은 호남의 힘을 다 풀었다고 말한다. 너무나 멋진 행보를 대통령이 해주기 때문이 다.

이는 바로 문 대통령의 심성이 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애민이 되고 애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을 열광하는 것이다. 정치생명 살리기에만 혼이 빠진 직태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발 탓도 하지 말고 냉 빠진 것 거리니까.

社說
적조 예방에 최선 다해야

'여름철 불청객'인 적조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예년보다 빠른 7월 중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당국이 모의 훈련을 하는 등 사전 대응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국무 회의에서 '2017년 적조 전망·피해 예방대책'을 보고하고,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조 방제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적조는 바닷물 속에서 떠다니는 생물인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이나 접적(集積)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편모조류는 유독종이 많아 어류를 폐시시키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사람이 유독화한 어패류를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수온은 평년보다 약 0.5~1도 높아 적조 생물(코콜로디니움)이 작년보다 2일 가량 빠른 지난 달 4일께 처음으로 검출됐다. 해수부는 미래부와 함께 진행 중인 적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기고



장종문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성범죄, 예방이 최선이다

무뎌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을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가철이 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많은 차량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 가량 증가하는 빙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물래 카메라에 촬영과 성범

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방어운전을 하면서 또는 집을 비울 때 출입문을 잘 시정하고 성범죄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미듣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국민의 0.1%가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 믿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피서지 성범

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활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규정을 보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페라 등을 이용한 활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경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역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성안전 특별지 안내책'을 시행하여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음주 및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자.

둘째,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셋째,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 이용 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활영 음이 들리면 물가 여부를 확인하자.

넷째, 위급시를 대비해서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거나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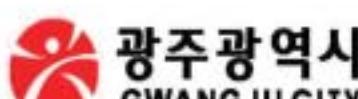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堅	굳을	견	堅持雅操
持	기질	지	坚持雅操
雅	맑을	아	뜻: 맑은 절조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임.
操	집을	조	

本	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 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6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644		
총괄 이사 논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